# 불황에 임시직만 퇴출?

## 광주, 임시직 근로자 14만명 … 3년만에 최저치

## 전남지역도 13만6천명 … 전달보다 8.8% 줄어

경기 침체와 비정규직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임시직 근로자 숫자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광주·전남 기업들은 장기 불황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해 해고가 쉬운 임시직부터 줄인 것으로 드러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광주의 임시근로자는 1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15만1천명)에 비해 7.3%(1만1천명)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5년 8월(13만9천명) 이후 최저치다.

전남도 8월 임시근로자 수가 13만6천명까지 떨어져 전달인 7월(14만9천명)보다 8.8%(1만3천명) 줄었다.

광주·전남의 임시직 감소는 기업들이 장기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이 느슨한 임시직부터 인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도 임시직 감소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광주·전남은 또 건설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일용직근로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광주·전남의 일용직 수는 12만2천명으로, 7월(12만7천명)보다 3.9%(5천명) 줄었다. 건설 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 8월 전국의 취업자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497만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임시직 규모는 전달인 7월(516만3천명)에 비해 3.7%(19만3천명) 감소한 것으로, 2005년 8월(487만9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일용근로자 수도 8월 현재 202만7천명으로, 7월(214만6천명)에 비해 5.5%(11만9천명) 줄었다.

이에 따라 8월 들어 전국의 임시 및 일용직을 합한 숫자는 699만7천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7월(730만9천명)보다 4.3%(31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2005년 2월(695만7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등 국내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근로계약이 비교적 느슨한 임시직부터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건설업의 장기적인 불황도 임시·일용직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임시직=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 완료를 위해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일용직=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떠돌며 일하는 근로자.

# 수도권 기업 지역투자 줄 잇는다

## 광주시, LED 전문업체 ㈜필룩스 등 8개사와 600억 규모 투자 양해각서

LED(발광다이오드) 등 광산업 관련 기업들이 23일 광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들의 광주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수도권 소재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전문업체인 ㈜필룩스를 비롯한 8개 기업과 605억여원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업은 국내 3대 조명등기구 업체로 광주의 광클러스터를 이용하려는 수도권 소재 ㈜필룩스, 무수은 면광원과 태양전지를 개발·생산하는 ㈜루미솔, LED 분야의 광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익스톨 등 LED·전자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6개 업체다.

또 차량의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 부품을 생산하는 에스제이하이테크(충남), 곡물건조기를 자체 기술로 생산, 수출하는 ㈜성산기업(전남) 등 2개 업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MOU 체결로 지역에서 31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광주시의 핵심사업인 LED 관련 광산업·자동차 산업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소재지·규모·업종별 특성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지방이전 및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전자 지문 적성검사**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에서 열린 '2008 SWU Job Festival'에서 학생들이 유전자 지문 적성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중소기업 대규모 채용박람회

##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서 530여개사 참여 1천여명 뽑아

중소기업 인력난과 취업난의 동시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박람회'가 24일 오전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취업 및 영어면접에 관한 특강과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특히 금호아시아나, 두산, 롯데, 삼성전자, 신세계, SK, LS, LG, 하이닉스반도체, 한화그룹, 현대.기아자동차 등 11개 대기업의 협력사 120개사와 전국의 우수 중소기업 400여개사가 참가, 약 1천여명의 구직자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지난 11일 정례 회장단회의에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경우 연말에 더욱 확대된 규모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박람회 개막식에는 전경련 조석래 회장과 정병철 상근부회장,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이상연 회장 및 지역회장단,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 전남지역 단위 농협 직원 39명 채용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이덕수)는 23일 도내 단위 농협 16곳이 총 39명의 직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채용에는 응시자격을 부모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39명 전원이 전남 시·군지역 인재로 채워지게 된다.

농협별 모집 인원은 1명에서 최고 5명까지로 지원서는 26~10월2일 인터넷(http://jeonnam.nonghyup.com)을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10월 10일)과 2차 필기시험(10월 26일 광주 조선대부속중)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채용시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남본부가 총괄한다"며 "이번 채용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 인재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7월 중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반 증가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7월중 여·수신 규모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총여신은 47조2천903억원으로 전달보다 1.0%(4천816억원) 늘었다.

지역내 총여신 규모 증가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총여신이 1.0%(3천148억원) 증가한 30조7천266억원에 달했다. 비은행기관의 여신규모도 1.0%(1천668억원) 늘어난 16조5천63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수신 규모도 동반 증가했다. 7월중 광주·전남의 총수신은 64조3천655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0.4%(2천803억원) 늘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0.6%(1천670억원) 늘어난 26조7천40억원, 비은행기관은 0.3%(1천133억원) 증가한 37조6천61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강만수 장관 "中企 지원책 조만간 마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량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신용지원 활성화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적시에 금융권에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상황이 실물경제에 줄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 분석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 ELW 투자자 교육

### 증권선물거래소 25일 DJ센터

증권선물거래소(KRX)는 25일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ELW시장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증권사와 거래소의 ELW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ELW의 기본구조와 투자전략 등으로 구성됐고,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ELW투자 종합 안내책자'도 배포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